

설교자 회의 (20240426)

1. 본문: 누가복음 24:13~35절

제목: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대지 1. 찾아오심

2. 깨닫게 하심

한줄 요약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다.”
연구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아직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을 통해 무덤이 비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쉽게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도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중에 둘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대화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다니셨듯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16절에서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내가 반드시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으로 가르치셨음에도 제자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신대로 진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와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후에도 다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마치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구하지 않았는데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하나 찾아와 당신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를 가르치십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기에 아직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미련하고 무지한 자라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차근차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은 너희들의 선택이나 실력으로 예수를 만나러 나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구원이 필요한지도 몰랐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도 몰랐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그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얼 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나와 우리 집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깨닫고 어려움을 준비하

여, 자신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애굽을 넘어 근동지방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찾아와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며 성취감에 도취 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어려움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깊은 의미를 가르치시고 깨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아는 인생이 많은 것을 소유한 것보다 어떤 가치를 가진 것보다 더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의 신자된 인생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리십니다. 모른다 나무라지 않으시고 모자라다 혼내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와 우리를 기르시며 성장시키시는 주님 안에 거하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2. 본문: 레위기 10:1~7절

제목: 나답과 아비후의 선택

대지 1. 편리한 생각

2. 어려운 방법

한줄 요약 “나답과 아비후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렵고 힘든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리한 생각이었다.”

연구

레위기 9장에서는 아론이 첫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온 백성에게 나타난 여호와와 영광이었으며, 그것은 제단에 임한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9: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10장에 등장하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장로 칠십인과 더불어 시내산에 올랐으며, 그 앞에서 “하나님을 뵈고 먹고 마셨던 자들과 함께 있었던 아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장로 칠십인을 제외하고는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만이 이 자리에 있었다는 점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일찍부터 중요한 인물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배경에 놓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론이 9장에서 속죄제, 화목제를 지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대로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제단위에 제물들이 놓이게 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단에 제물을 살랐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제물들을 받으셨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흠향하신 제사에서 제사장들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간수했을 것이라고 주석은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와 여호와 앞에 분향할 때, 어떤 불을 사용해야한다고 명시적인 명령은 없지만, 번제단에서 피운 불로 향로를 채웠다는 사례들은 있습니다.(레16:12, 민16:46)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떡을 굽는 화덕에서든 어디에서든 ‘다른 불’을 그 향로에 담아 여호와께 나아

가 향을 피웠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살라버린 것입니다.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라고 말씀하는데 ‘다른 불’을 꾸며주는 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에 핵심은 ‘하나님이 명령을 고려하지 않은 행동에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9:24절에서 불이 나와 제물을 살랐고, 10:2절에서는 향로를 드린 제사장들이 불에 살라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쓰인 것은 분명 대조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무엇을 대조하고 싶은 것일까요?

민수기 16장에 가면 고라가 다단, 아비람 등과 결탁하여 이스라엘 지도자 250명을 끌어 모아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적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각각 하나씩 모두 250개의 향로를 들고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자신의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둔 채 회막에 섰을 때 “여호와와 불이 나와서 삼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로서 ‘하나님이 누구를 구별되어 세우셨는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서 전하는 교훈은 거룩 즉 구별됨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만들어 내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고라자손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시고 그들을 구별되게 하신 것이지, 스스로 그렇게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듯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의도적으로 경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¹⁾ 김근주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이 섬기기 쉽게 길들일 수 없었다. 언제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취향과 기호에 맞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 모든 사람이 똑같고, 모든 불이 다 같고, 모든 향이 같다 하겠지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 다른 향, 다른 사람”으로 그분께 나아오면 여호와와 불이 이들을 삼키게 된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불이 나와 나답과 아비후를 살랐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편리한대로 하나님을 믿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를 생각해보면 인간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므리바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려 하셨지만 모세는 자신의 방법대로 두 번 반석을 쳐서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심을 드러내시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 가운데로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드러내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대로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대로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이고 구별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인지? 아니면 내 뜻과 경험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인지를 점검하는 귀한

1) 오늘을 위한 레위기 김근주 P.222

시간되시길 축복합니다.

3. 본문: 레위기 16:1~10절

제목: 속죄일에

- 대지 1.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을 정하신 이유
2. 입는 옷과 제물을 바치게 하신 이유

한줄 요약 “속죄일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시점과 입는 옷과 제물을 바치게 하신 이유는 구별되어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다.”

연구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에서부터 성경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차적으로 16장을 8~10장과 연결시키는 장치**”라고 해석합니다. 첫 제사장들의 위임과 그들에 의해 드러진 첫 제사에 관한 내용이 초대 대제사장에 의해 거행되는 첫 속죄일 예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답과 아비후를 등장시킨 이유는 이들의 죽음은 성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시체가 성소에 놓였다는 것은 성소가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16:1절에 ‘**아론의 두 아들의 언급**’은 ‘**그들의 죽음으로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이끄는 도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이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2절에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지만,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아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룩하게 세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이 아론 안에 계속 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속 거룩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론이 자신의 삶에서 여전히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인식시켜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존재가 된 신약의 시대와 달리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아직 허락되지 않은 방법이고 영역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구별된 후 한 후에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성소와 연관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16장 첫머리에 실려 있다는 것은 더욱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속죄일에 대제사장의 복장과 자신을 위해 드러야 할 제물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속죄일을 위해 대제사장이 입은 기본복장과 차이가 있습니다. 흰색으로 이루어진 의복은 금과 여러 색의 울 굵불긋한 색실로 이루어진 평소 대제사장의 의복과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일 의복은 하나님 앞에 속죄와 정결을 구하기 위해 나아오는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대제사장의 낮아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별도의 의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속죄일 의식의 특별한 거룩함과 구별됨 속에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나답과 아비후를 여기서 다시 언급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시도들을 미연에 차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율법과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그들이 존재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복잡하고 불편한 방법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죄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랜 시간 이런 제사의 깊은 의미가 사라지고 행위만 남은 이스라엘과 우리들을 위해 직접 대제 사장으로 흠이 없는 제물로 오셔서 자신을 바치신 그리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본문이 되길 축복합니다.

4. 본문: 레위기 24:10~16절

제목: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

대지 1. 심판을

2. 구원으로

한줄 요약 “하나님을 모독함으로 거룩을 훼손한 죄에 대한 심판 우리가 받아야 하지만, 그 책임을
예수가 지게 하셨다.”

연구

10절 이하에서는 단 지파에 속한 슬로밋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슬로밋의 아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그를 격리하여 가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어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회중에게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큰 죄를 저질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단순히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죽게 될 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죄를 저지른 책임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에게 손을 얹은 이유는 “그의 잘못을 들은 사람들의 증언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에 끼친 죄를 확인시키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분쟁의 상황에서 이러한 저주의 말을 내뱉었겠지만, 하나님을 저주한 것은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거류민’이라 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울러 저주하는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게 하신 이유는 ‘먼저 당사자에 대한 사형 선고에 모든 사람의 일치된 합의가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7:2~7절을 보면,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두 사

람 이상의 증언에 기반 해야 하며, 그 증언이 먼저 당사자에게 손을 대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늘 손을 얹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마땅히 죽임을 당할 만큼 중대한 범죄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에 훨씬 더 신중하게 대응하여, 그 일을 공동체 전체의 일로 여기고 책임의식과 동시에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몇몇 학자들은 슬로밋의 아들이 정죄를 받는 것이 마치 부모의 혈통과 연관된 것처럼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개인의 잘못에서 비롯된 심판이지, 혈통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오해를 해서는 안됩니다.

16절에 보면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슬로밋 여인의 아들에 대한 심판은 혈통과는 무관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방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이 단지 이스라엘만의 민족에게만 국한 된 문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거류민들에게도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신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땅에 사는 한 합당한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은 **“혈통이 아니라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통치 영역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에도 저촉되면 응당 벌을 받아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고상한 하나님의 법의 효력이 발휘되는 곳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도 이미 진영 밖으로 나아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운명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진영 밖으로 끌려 나가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동체에서 억울한 죽음이 없게 증인 제도를 가르치셨지만, 인간은 그 제도를 이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구별 되어 살아가는 방법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그 것들을 이용하여 악을 행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지만 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 잘못 사용하고 있음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